



팔복동지사협, 독거어르신 안부·간식 제공

전주시 팔복동 주민센터(동장 김인택)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19일 관내 독거 어르신들 170세대에 안부를 전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와 계속되는 무더위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독거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말벗이 되어 드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팔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진수) 위원들이 각각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뵙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윤모 어르신은 "혼자 집에 있으니 적적하고 사람이 그리웠는데 방문해 주어 반갑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진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무더위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열려매 이날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동네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우이2동 이백장동가스, 매달 소외계층에 무료 돈가스 제공

전주시 우이2동 이백장동가스(대표 정지민)가 관내 어려운 이웃 10세대에 매달 돈가스를 전달하는 기부를 이번 달에도 이어갔다. 이백장동가스는 코로나 시국으로 요식업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부터 매달 저소득층 10세대에 돈가스 도시락 메뉴를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정지민 대표는 "요식업도 힘들지만 경제가 어려워져서 주위에 식사도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돈가스가 지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작은나눔이 무더위 이겨냈으면”

이마트 전주점·함께하는 한숲, 취약계층에 보양식 원기회복키트 250개 후원

이마트 전주점(점장 최항복)과 (사)함께하는 한숲은 지난 20일 전주시 장실을 찾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보양식 원기회복키트 250개를 기탁했다. 이번 지원은 이마트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00가구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돕기 위해 이뤄졌다. 보양식 원기회복키트는 반계탕과 추어탕, 수삼영양밥, 철원 오대밭 등 가정간편식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이마트 전주점은 지난달 6월에도 1000만



원 상당의 가진, 이불 등 생필품 꾸러미를 후원했다. 최항복 점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원기회복키트를 지원하게 됐다"며 "작은 나눔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염 속에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이마트 전주점과 (사)함께하는 한숲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에서도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서출판 국학자료원새미, 임실군에 도서 3000여권 기증

도서출판 국학자료원새미(대표 정구형)가 임실지역의 인문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인문 도서 3,000여 권을 기증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군수실에서 심민 군수와 정찬용 국학자료원장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도서출판 국학자료원새미는 1980년 창립하여 한국학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출판사로 우리 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한국문화 콘텐츠를 창출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 시국에 우울감에 빠진 지역주민들에게 이번 기증받은 인문 자료가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귀중한 책을 기증해주신 도서출판 국학자료원새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증 도서는 관내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골고루 배부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한상규 전 총재 의료진에 쿨스카프 기탁

여름철 무더위 속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임실군 의료진을 위한 쿨스카프가 기탁됐다.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전 총재를 지낸 한상규 씨는 임실군을 찾아 "폭염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쿨스카프 110개를 기증했다.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는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전북 출신들의 단체다. 한 전 총재는 평소에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다양한 고향 사랑 선행을 펼치고 있다. 한 전 총재는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군민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누구보다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들의 고충이 무척 클 것"이라며 "연일 코로나19로부터 지역민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는 뜻을 전했다. 쿨스카프는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 전달됐다. 쿨스카프를 전달받은 군 보건의료원 의료진들은 "코로나와 폭염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그래도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마음으로 지냈다"며 "이러한 노고를 알아주시고 쿨스카프를 보내주시니 기운이 나 더욱 열심히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시·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교통문화 향상 간담회

전주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강신성)는 지난 20일 각 기관 봉사단체인 전주시 안전보안관(단장 김인순)과 (사)희망VORA(전북지역 단장 이종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협력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기별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며, 교통사고로 중증장애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교통사고로 중증장애를 입은 취약계층 100가구를 찾아 600만 원 상당의 이불세트를 전달했다. 또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고 인부를 묻기도 했다. 김철현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최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장애를 입은 취약계층에 이불을 지원해주시는 봉사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mci.com 2004년 11월 23일 등록(약간) (주)5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 | | | |
|--------------------|--------------------|--------------------|--------------------|
| 전주지사 010-6645-4113 | 중앙지사 010-9188-6574 | 남원지사 632-3886 | 고창지사 663-6999 |
| 삼천지사 010-2333-4791 | 인후지사 246-6655 | 김제지사 545-4227 | 임실지사 010-9942-2725 |
| 사산지사 272-9417 | 송천지사 255-2404 | 안주지사 246-6655 | 진안지사 433-3164 |
| 호지지사 010-6645-9986 | 팔복지사 253-6944 | 남원지사 632-0985 | 장흥지사 636-3767 |
| | 군산지사 010-6739-0338 | 순창지사 663-0444 | 장수지사 010-3922-6157 |
| | 익산지사 663-9923 | 부안지사 010-2425-4182 | 무주지사 010-2300-4253 |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